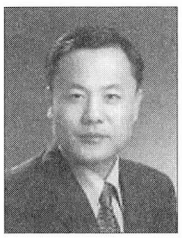
2007년 애완동물산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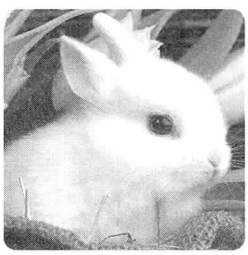
Planning special [6]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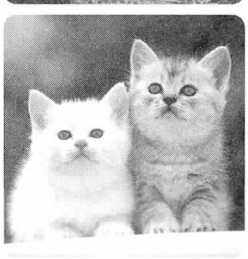
김병수 교수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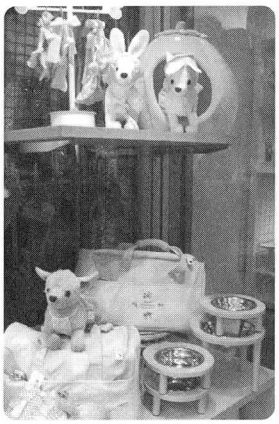
국내 애견 시장 규모는 2002년 말 기준 1조 3000억 원으로 연간 15~20%의 성장률을 보여 왔다. 국내 애견 분포는 현재 약 300만 마리로 추정하고, 애견 수입도 2001년 936마리에서 2002년 말 기준으로 1만 2646마리로 13.5배의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금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역 수출하려는 움직임과 중국 특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애견산업은 기존 업체 간의 경쟁 심화와 관련 분야 내의 업종 다각화 및 다양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고수익 · 선진형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와 개인사업 참여가 확대되었다가 오늘날 수요대비 관련 업체 수의 과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 규모는 큰 변화 없이 진료 · 서비스는 물론 용품 등의 모든 애견 분야의 경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및 독신주의의 증가 그리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고소득 전문 직종 증가와 적극적 여가활용) 등의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애견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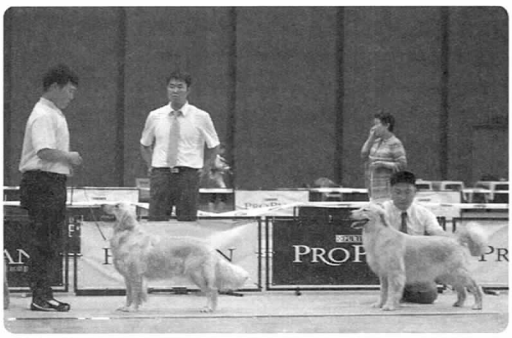
2003년부터 애견시장 규모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여 올해는 200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고성장가도를 달리던 애견산업이 이처럼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지난 수년간 애견열풍으로 부풀려진 거품이 급속히 꺼지고 있는데다 불황으로 애완동물이 무더기로 버려지는 등 관심마저 싸늘하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애견인들 사이에 애견 선진문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애견을 사업적으로 혹은 취미나 흥미위주로 기른다는 개념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과 일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혹은 동반동물로

세부시장	현 황	문제점 & 향후전망
분양시장	• 보급견 : 50~80 만원 ＊지방 &인터넷 판매 • 혈통견 : 200~2,000만원(주문 후 맞춤분양)	• 수요의 절대 부족 시장 ＊번식장의 비 전문성⇒ 품질저하 ⇒ 고객불만 증폭 • '중국특수' 와 미국 및 일본 역수출
용품시장	• 주도 ITEM : 사료, 간식, 샴푸 류 • 보편 ITEM : 의류, 간식&껌, 장난감, 영양제, 하우스 및 악세서리, 베이커리, 다이어트제품 등 매우 다양	• 소규모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비전문적 물류시스템 (＊가격 표준화의 어려움 ← 공급자 위주의 시장형성) • 중고급 브랜드의 국내 출시 및 중형사업자의 의한 PB 상품의 시장 배포가 예상됨 • 고급화, 다양화로 시장 양분현상이 예상됨
진료시장 (의료시장)	• 동물병원수 전국 2500개 이상 • 일반진료 : 의료보험미적용으로 고가 ＊고비용부담시 버리는 추세	• 복합서비스(병원 + 샵 + 미용)기능을 갖춘 중형병원이 보편화, 향후 전문화 추세 • 전문 동물약품을 이용한 자가 치료와 백신의 공동구매 등으로 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 • NETWORK SYSTEM을 구축한 구심체의 등장이 예상됨(전문화)
미용시장	• 일반미용 : 20,000~35,000원 • 전문 미용기법의 등장 및 미용사의 이미지 개선 • 수입은 좋으나 힘들어 이직 율이 높은 편	• 아름다움은 개성연출을 위한 차별화로, 관리미용은 질병예방을 위한 필수화로 이원적 발전이 예상됨 • 방문&맞춤 미용 등장
교배시장	• 일반교배 : 12~200만원 • 혈통증명이 가능한 종견의 절대 부족으로 믹스견 양산	• 혈통서의 신빙성 및 요구가 증가함 • 비싼 종견의 수입보다는 고급견 위주로 혈통견의 정맥수입을 통한 인공수정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타 서비스시장	• 다양화되는 PET시장의 단면을 보여줌 • 애견카페, 애견작명 사이트 등 등장 • 애견테마파크 : 5~28만원 • 애견호텔 : 1박 3~7만원 VIP는 10만원 이상 • 애견장례업 : 평균 20만원 • VIP패키지는 60~100만원 이상	• 포화, 안정된 보급 애견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팽창 • 서비스의 점차 확대와 다양화⇒ 선진국형으로 옮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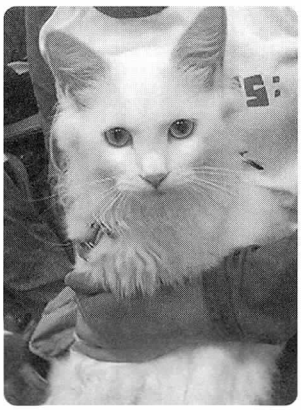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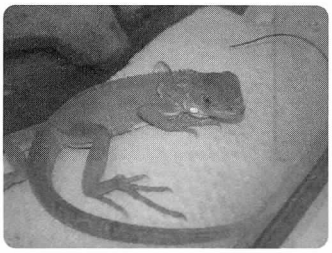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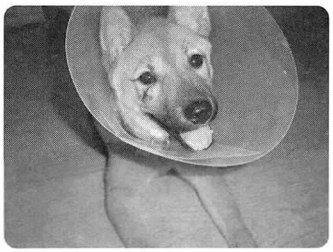
서 인식되어가고 있다. 최근 애견산업의 내수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해외수출이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애견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애견산업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고 작년에만 관련 매출 규모가 3백 40억 달러에 달했다. 사료와 소모품, 의약품, 의료 서비스 등이 고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애견산업 규모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10%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의 경우는 애견관련 산업이 국가 전체 GDP의 3~5% 차지하고 있다. 미국 애완견용품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경제가 지난 몇 년간 침체되었지만 애견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수록 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애견산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라 함은 개와 고양이인데 이들은 보통 반려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분야는 종사자 많고 일단 구입비용이 고가이면서 사양관리 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상당히 전문화 되어있고 사료와 용품에 관계된 비즈니스가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기니피그, 햄스터, 슈가글라이드, 고슴도치, 토끼 등의 소 동물들로 그 종류가 아주 많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 등이다.

기타 애완동물로는 분류되는 것은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이, 소라게, 할로윈크랩, 타란튤라(거미), 전갈, 개구리, 살라만다 등등 종류가 아주 많다. 다음은 관상어와 관상조가 있는데 국내 관상어 시장은 1980년대를 시점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포화상태이지만 아직도 아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관상어의 종류는 민물어와 해수어로 나누어지며 특히 해수어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곤충이 있는데 이 분야는 곤충과 용품시장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종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애완동물 분야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현재 일본시장은 아주 크며, 향후에는 중국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이다. ⑤